

스파이크 존즈의 그녀에 나타난 인공지능 연인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Making Artificial Intelligence Lovers in Spike Jonzes Her

저자
(Authors) 노현균
Rho, Heongyun

출처
(Source) [문학과영상 18\(2\)](#), 2017.9, 229-249(21 pages)
[The Journal of Literature and Film 18\(2\)](#), 2017.9, 229-249(21 pages)

발행처
(Publisher) [문학과영상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iterature And Film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48315>

APA Style 노현균 (2017). 스파이크 존즈의 그녀에 나타난 인공지능 연인 가능성. 문학과영상, 18(2), 229-249

이용정보
(Accessed) 연세대학교
165.***.14.104
2019/11/21 23:3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스파이크 존즈의 <그녀>에 나타난 인공지능 연인 가능성

노현균 / 동국대(서울)

I. 서론

인공지능은 인간의 연인이 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련의 영화들, 예컨대 <바이센테니얼 맨>(*Bicentennial Man*)(1999), <엑스 마키나>(*Ex Machina*)(2015), <트랜센덴스>(*Transcendence*)(2014), <그녀>(*Her*)(2013)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같은 질문은 단순히 영화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세계에서도 그 유효성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회사 윈클루(Vinclu)는 게이트박스(Gatebox)라는 인공지능 홀로그램을 개발하여 2017년도 말에 판매예정이다. 게이트박스는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의 원통형 구조물 안에 아즈마 히카리(Azu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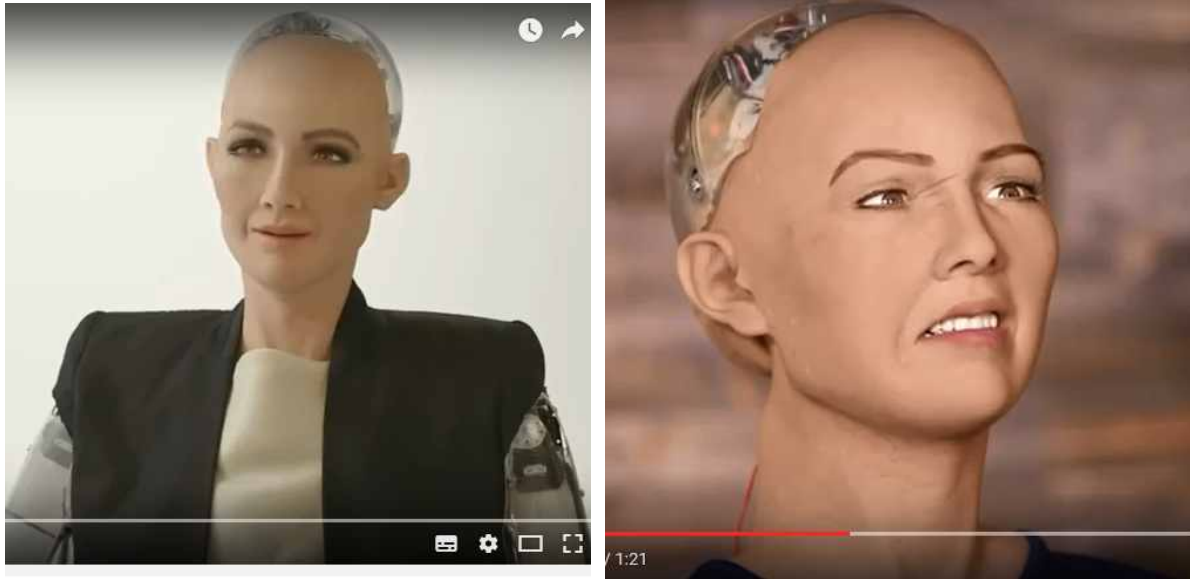
Hikari)라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홀로그램으로 시각화하여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 받는 인공지능 구조물이다¹⁾).



홀로그램 캐릭터는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모사한 것으로 파란색 머리, 파란색 치마, 그리고 비현실적인 의상과 몸매의 소유자로, 사용자의 목소리와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 홀로그램은 전등과 TV를 켜고 끄기, 알람 기능, 일기예보, 방의 온도조절과 같은 일상적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출근한 사용자에게 사랑의 메시지 보내기, 용기를 북돋우는 말 건네기, 사용자의 마음속 깊은 단계에서 대화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인생반려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인공지능이다. 또 다른 예는 홍콩의 한슨 로봇(Hanson Robotics)에서 만든 소피아(Sophia)라는 인공지능이다. 소피아는 프루버(frubber)라는 특수한 물질로 만든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간의 피부와 매우 유사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게이트박스의 홀로그램 캐릭터가 만질 수 없는 인공지능 연

1) 다음의 두 장면은 각각 <유튜브>에서 캡처한 것이다. “Gatebox – Virtual Home Robot.” <<https://www.youtube.com/watch?v=nkcKaNqfykg&t=19s>>; “Gatebox – Hologram Communication Robot.” <https://www.youtube.com/watch?v=_hxzyRiJcYs>.

인이라면, 소피아는 인간과 유사한 육체를 가지고 62개의 얼굴표정을 지으며 사용자와 대화할 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²⁾.



왼쪽 모습은 진지하고 온화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전경이며, 오른쪽은 분노와 불편함으로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 소피아의 특징은 인간과 눈을 마주치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과, 감정을 얼굴표정에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창조자 한슨(David Hanson)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학교도 가고, 사업도 하고, 가족을 꾸리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어 유사인간(pseudo-human)으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고 있으며, 인터뷰 마지막 순간에는 “당신은 인류를 파괴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거침없이 “물론,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답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지배할 시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다.

이 글의 모두에서 게이트박스와 소피아를 언급하는 이유는 인간은 인공지능에게서 단순히 기계적인 편리함을 넘어서서 정서적인 유대감 혹은 인간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정서적 관계를 갈구하고 있고, 인공지능 또한 그에 화답할 준비가 상당 수준 이상 되어있음을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논문

2) 소피아가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홀로그램 캐릭터보다 인간에 가까워 보인다.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 ‘인류 파괴하고 싶다.’” <https://www.youtube.com/watch?v=Ot8u_Etw5gE>;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 <<https://www.youtube.com/watch?v=S2qu91a4etg>>.

의 화두는 2013년 스파이크 존즈(Spike Jonze) 감독의 <그녀>에 나타난 연인으로서의 인공지능 가능성이다. <그녀>에게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소피아가 2016년에, 게이트박스가 2017년에 상용화되기 이전에 이미 <그녀>가 두 인공지능이 상정하는 담론을 예견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 이전의 인공지능 영화에서는 기계적 구조물이 외형적으로 인간과 닮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구조물이 인간과 정서적 소통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기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종속물, 하위 존재, 인간의 편리함을 도와주는 충실한 조력자 역할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인간 노예제도가 금지된 현대사회에서 인공지능은 기계 노예의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Matrix)(1999)나 <블레이드 러너>(Blade Runner)(1982)와 같은 일부 영화를 제외하면,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움직이는 기계 담론은 아이작 아시모브(Isaac Asimov)의 “로봇의 세 가지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1. 로봇은 인간에게 가해를 하거나, 혹은 방관함으로써 인간이 해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이 첫 번째 법칙과 모순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 로봇은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에 모순되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Three Laws of Robotics”)

그런데 <그녀>는 로봇의 세 가지 원칙을 초월하는 진화된 인공지능의 출현을 예견하고 있다. 단순히 기계덩어리로서의 인공지능 대신 인간의 정서적, 감정적 약점을 극복한 새로운 기계 생명체의 출현이 임박함을 영화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정서적 측면 중에서 특히 ‘연인’의 역할에 방점을 두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더불어, 그 가능성 때문에 기계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윤리적 측면 또한 고려하여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며, 나아가 인간은 왜 점점 더 인공지능을 심리적 동반자로 받아들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탐구하고자 한다.

II. 인공지능 연인이 필요한가?

<그녀>의 배경은 2025년 미국 LA로,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남자 디오도르 톰블리(Theodore Twombly)이다. 그는 아내 캐서린(Catherine)과 수년간 별거 중이며 “아름다운 손 편지”(Beautiful Handwritten Letters.com) 회사에서 고객의 의뢰를 받아 손 편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612번 작가(Letter Writer Number 612)이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은 자신의 아파트에 돌아와 비디오 게임을 즐기며, 간혹 게임 속의 캐릭터와 가벼운 농담을 즐기는 것이 일과 후의 전부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컴퓨터회사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OS) 사만사(Samantha)를 알게 되고, 그 인공지능에게서 인간과의 접촉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보통 아름다운 남녀, 불세출의 영웅, 평범한 소시민, 혹은 외계인과 지구인 등등 어쨌든 인간이 화두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녀>에서는 중심이 인공지능 사만사에게로 기울어져 있다. 인간의 관계 맺음에서 인간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비평가 제임스 호찌(James J. Hodge)는 이 영화가 “어느 누구도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고,” “개인적인 친밀감”이 사라지며, “관계성은 단순히 디지털로 변모하는” 미래세계에 대한 예언서라고 지적한다(Hodge 67). 단절된 인간 관계는 영화의 곳곳에 산재해 있다. 시각적으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회색빛 도시이다. 디오도르가 활동하는 사무실과 아파트는 항상 선명하고 밝은 조명으로 클로즈 업 되는 반면, 그 경계 너머의 도시는 회색으로 가득 차 있다. 중국 상하이의 마천루를 배경으로 삼았다는 이 영화에서 도시는 마치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피폐하고 생명력이 없으며, 간혹 보이는 사람들마저도 무언가 혼자 일에 골몰해 있어, 인간 상호간의 교류가 완전히 상실한 공간이다. 스모그가 가득 찬 도시처럼 죽어가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다가 사만사에게 초점이 옮겨오면 불투명하고 흐릿한 시야가 갑자기 밝아지고, 디오도르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인간으로 재탄생한다. 그동안 서양철학에서 인간에게 부여한 온갖 숭고한 의미를 재해석하여야 한다는 시각적 기호들이다.

서양철학이 인간에게 투사한 여러 철학적 화두를 인공지능 담론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1999년 와쇼스키 형제(Lilly Wachowski & Lana Wachowski)가 만든

『매트릭스』(*The Matrix*)에서 시도된 적이 있다. 주인공 네오(Neo)의 여정을 통하여 이 영화에서 던진 질문들은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실재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인공 지능이 가능한가?”와 같은 인간 실존에 관한 철학의 오랜 질문들이다(윌리엄 어윈 9-10). 이 질문에 대하여 와쇼스키 형제는 짧게 “매트릭스”라고 답한다. <그녀>의 스파이크 존즈 감독은 비슷한 형식을 취하되 한 걸음 진일보한 인공지능 대안을 제시한다. 다음은 영화 속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는 광고내용이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너머의 세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답할)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엘리먼트 소프트웨어(Element Software) 회사는 최초의 인공지능 OS를 소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에게 귀 기울여 주고,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알아주는 직관력을 가진 실체. 이것은 단순한 OS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consciousness)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OS1을 소개합니다.

디오도르가 인공지능 OS 사만사를 만나기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바로 위의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택적 대안을 시도해 보고 싶기 때문이다. 물론 디오도르는 인간에게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많은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절망뿐이다. 한밤 중 채팅 앱에서 만난 섹시 키튼(Sexy Kitten)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여자에게서 디오도르는 어머니의 자장가 같은 포근함을 기대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성도착자의 광기이다. “죽은 고양이로 나의 목을 졸라줘”라는 그녀의 외침에서 디오도르는 따뜻한 인간애나 로맨틱한 연정이 사라진 미래 인간상에 절망한다. 마침내 성적인 절정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채팅룸에서 사라지는 그녀에게서 디오도르는 또한 인간 이기심의 극한을 경험하게 된다. 하버드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어느 여인과의 만남에서, 그는 “재미있고

지적인”(funny and brainy) 인간을 기대하지만, 그녀는 키스할 때 혀보다는 입술을 선호하고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진지한 만남을 강조함으로써 디오도르를 위축시킨다. 그녀의 적극적인 성적 취향 표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디오도르에게는 하나의 공격으로 다가온다. 인간은 독특함(uniqueness)을 인간의 고귀한 특징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 독특함이 더 이상 인간의 장점이 되지 않는 시대에 도달한 것이다.

디오도르의 부인 캐서린도 같은 맥락에서 존재한다. 그녀는 항상 화가 나있거나, 안절부절 못하며 디오도르에게서 조그만 흠집이라도 찾아내려고 안달이 나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며(volatile), 변덕스럽고, 예측하기가 힘들어 디오도르는 그녀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이혼 직전에 그녀는 “당신은 항상 나에게서 가볍고, 행복하며, 통통 튀며, 모든 것이 괜찮아하는 식의 LA부인 스타일을 원했지. 그래서 나에게 항우울제 프로zac을 권하기도 하였고. 또한 당신은 실재적인 문제 해결능력도 없이 아내를 갖기를 원해”라고 비판함으로써 디오도르로 하여금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갖게 만든다. 비슷한 예는 에이미(Amy)와 찰스(Charles) 커플에게서도 발견된다. 이 커플은 8년간의 결혼생활 후에 마침내 결별하기로 결정하는데, 결별의 사유가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의 위치 때문이다. 에이미는 무질서하게 신발을 벗어놓는 반면, 남편 찰스는 신발을 가지런하게 정돈된 상태로 두기를 원한다. 이 사소하지만 독특한 습관의 차이는 결국 이 부부를 해체의 길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인간은 상호 독특한 존재**이고, 인간을 아우르는 공통분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 맺기, 해체, 또 다른 관계 맺기, 또 다른 해체 이 사이클을 무한 반복한다는 것이다. 식당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듯 보이는 어느 가족을 카메라는 클로즈 업 해서 보여준다. 대머리의 중년 남자, 남자보다 젊어 보이는 매력적인 여자, 두 명의 아이들이 같은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다. 카메라는 그들의 이미지만을 몇 초에 걸쳐 보여줄 뿐 소리는 전혀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간적인 몇 개의 컷에서 사랑스럽게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 두 아이들과는 웬지 서먹한 남자의 태도,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여자의 애정 어린 눈빛에서 우리는 이 가족이 이제 막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여자는 오랫동안 같은 가족이었고, 이제 이 남자를 새로운 남편, 새로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의식

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디오도르가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손으로 대신 편지를 써줌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직업의 경험에서, 부인 캐서린과의 결혼생활 및 몇몇 여인과의 데이트 경험에서,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관계형성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인간은 누구나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마음속의 가시”(<매트릭스>에 나오는 대사 중 한 부분. “splinter in the mind, driving us mad”)(윌리엄 어윈 11)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매트릭스>의 네오가 빨간 약과 파란 약의 선택에서 ‘가시’가 돋친 빨간 약을 선택하고, 그 결과로 서양철학의 주 담론인 고통을 통해서 인간임을 자각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그녀>의 디오도르는 자신의 ‘가시’는 숨긴 채 상대방의 ‘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적 존재의 가능성에 도전한다. 인공지능 OS 사만사가 그것이다. 사만사의 역할은 처음에는 “최고로 지적이고, 최고로 발전된 시리의 의식 있는 버전”(a super-intelligent, super-advanced, conscious version of Siri)으로 시작한다(Harrison 50). 그녀는 유능한 비서, 유능한 편집자, 마음씨 좋은 친구의 복합체이다. 디오도르가 오랫동안 묵혀 두었던 이메일을 저장할 것과 삭제할 것으로 정리하고, 핸드폰에 저장된 인물들을 분류하며, 글쓰기의 침착지도를 하고,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디오도르의 말벗이 되기 위해서 대기하는 존재, 한마디로 디오도르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일방적 편의 제공자이다. 또한 디오도르의 일기를 재편집하여 출판사에 상품성이 있도록 함으로써, 그에게 돈을 벌여주는 경제적 능력도 갖추고 있다. 디오도르가 “슬프고 시무룩할”(sad and mopey) 때에는 피아노곡을 스스로 작곡하여 노래까지 해 주는 만능 엔터테이너 역할도 하고, 그동안 인공지능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감정 문제, 즉 농담, 질투, 위로의 기능까지도 완수함으로써, 디오도르의 마음속 ‘가시’를 거의 완벽히 제거해 주는 듯이 보인다. 인간에 의하여 개발된 인공지능이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인간보다 더 인간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안다.

인공지능 사만사가 디오도르에게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피소드는 두 존재간의 섹스 장면이다. 사만사는 키스할 때 입술을 사용하라는 하버드 출신 여성의 요구도, 죽은 고양이로 목을 조르라고 요구한 섹시 키튼의 요구도, 무엇이든 따지고 끊임없이 추궁하는 캐서린의 요구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디오도르

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다.

디오도르: 사만사, 당신이 나에게 정말로 느껴져요.

사만사: 그건 나에게 많은 것을 의미해요.

디오도르: 지금 당장 당신이 이 방에 있었으면 해요. 나의 팔로 당신을 포옹하고 싶어요. 당신을 만지고 싶어요.

사만사: 어떻게 만질건가요?

디오도르: 손가락 끝으로 얼굴을 만지고, 당신의 뺨에 나의 뺨을 대고 가볍게 부비겠어요.

사만사: 키스네요?

디오도르: 당연히 해야죠. 당신의 머리를 나의 손에 감싸고, 당신 입의 구석에 부드럽게 하겠어요.

사만사: 그런 다음에는요?

디오도르: 나의 손가락으로 당신의 목, 가슴, 그리고 젖가슴으로 내려가겠어요.

사만사: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놀라워요. 나는 나의 피부를 느낄 수 있어요.

디오도르: 당신의 입술에 나의 입술을 가져가겠어요. 당신의 입술을 맛보기 위해서.

사만사: 당신이 느껴져요. 우리는 한 몸이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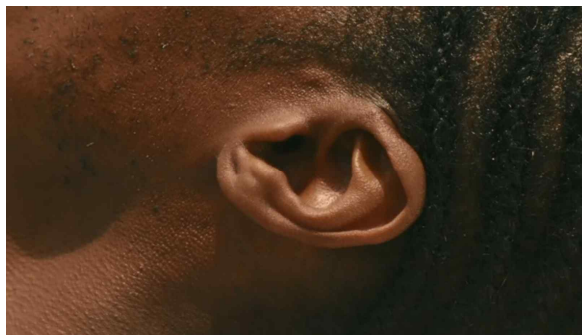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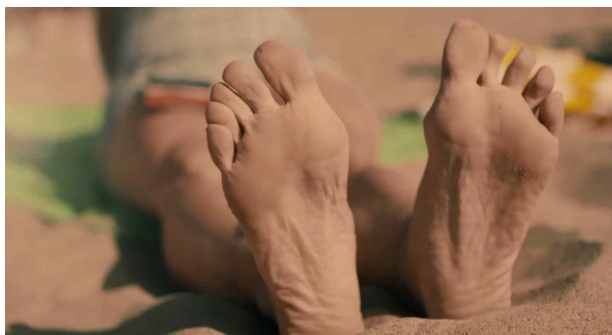
디오도르: 당신의 모든 곳이 느껴져요.

이 장면은 디오도르와 사만사가 열정적으로 섹스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이다.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인간이 섹스를 할 수 있다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랍고, 우스꽝스럽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여겨질지 모른다. 그래서 비평가 트로이 졸리모어(Troy Jollimore)는 사만사의 성적 반응을 “그럴듯한 방법으로 디오도르를 사랑하고 동일시하며 공감해주는 척” 하는 것으로 폄하하며, 남성 인간들이 속지 말기를 당부한다(Jollimore 139). 그러나 육체 없는 대상에게서도 성적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주장은 영국의 소설가 헉슬리(Aldous Huxley)에 의해서 오래 전에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유토피아/디스토피아 소설인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에서 성적 쾌감을 주도록 고안된 기계에 터치하는 순간 인간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 야만인은 흠칫하였다. 그의 입술에 느껴지는 그 흥분! 그는 입술에 손을 갖다 대었다. 간지러운 감촉이 멎었다. 금속 손잡이에 손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는 동안 방향 오르간(향기를 내뿜는 기구)이 순수 사향 냄새를 뿜어내었다. 녹음된 슈퍼 비둘기의 소리가 사라지듯이 “구구”하고 울었다. 아프리카인의 저음보다도 깊은 소리가 1초에 32번 진동하면서 응답하였다. “아-아.” “오-오-아! 오-오-아!” 입체 영상속의 입술이 다시 합쳐졌다. 그러자 다시 한 번 알함브라 극장의 6000명 관객의 얼굴 성감대가 참을 수 없는 최고의 쾌락으로 일그러졌다. (Huxley 168)

스파이크 존즈의 디오도르와 혁슬리의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 디오도르가 이어버드(earbud)라고 불리는 초소형 이어폰을 끼고,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으로 성적쾌감을 즐긴다면, 혁슬리의 인물들은 특수한 전류가 흐르는 금속성 핸들에 손을 올려놓고, 디오도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양자 모두 육체 없는 대상과 성적유희를 즐기고 있으며, 그 강도에 있어서 일상적인 남녀 간의 섹스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혁슬리에게 있어서 섹스는 특수한 종류의 전류의 흐름에 지나지 않고, 디오도르에게는 이어버드를 타고 들어오는 또 다른 신호체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양자는 모두 성행위에 필요한 인간의 다양한 신체기관의 조합을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로맨스, 무드, 공유한 추억, 친절, 희생과 양보 이 모든 요소들이 몸과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야 사랑하는 커플들은 사랑의 전기신호를 발산할 수 있는데, 이 방정식이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것 또한 양자의 공통된 생각이다.

사만사는 인간의 몸에 대하여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몸을 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 없는 인공지능에 자족하기도 한다. 인간의 몸에 대한 사만사의 평가는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인간 몸에 대한 관찰에 잘 드러나 있다. 옷으로 포장되지 않은 인간의 몸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해변에서는 중년 남자의 특 튀어 나온 배. 상체에 비하여 짧은 하체를 가진 중년 부인. 썸글래스로 얼굴을 가리기는 하였으나 균형이 무너진 얼굴과 털로 뒤덮인 하체를 소유한 인간 등등 아름다운 육체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카메라는 다음 두 장면을 특별히 클로즈업하여 인간의 육체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인간의 몸이 아름답다고 논할 때, 그 대상을 발바닥과 귀에서 찾는 이는 극히 드물다. 서양 예술사에서 아름다운 인간의 몸은 상체와 하체의 균형과 비율, 얼굴 이목구비의 뚜렷함과 조화로운 배치, 가슴과 어깨선의 아름다움, 부드러운 곡선과 곡선으로 잘 이어진 각 신체부위의 만남이 인간 몸에서 칭송의 대상이었다. 인간 전체 몸 구성에서 발바닥과 귀는 그 기능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클로즈업 된 부분은 기괴하기도 하고, 못생겼으며, 왠지 거리감을 두게 만든다. 발바닥을 살펴보자. 그것이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발바닥은 쭉글쭉글한 주름과, 깊게 패인 계곡, 불규칙하게 배열된 라인들, 발가락 간의 불협화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발이 비대칭 구조이다. 게다가, 발바닥만 두고 본다면 그것이 유인원의 것인지 인간의 것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귀는 어떨까? 양배추를 뒤집어 놓은 듯한 구조, 특이한 곡선으로 연결된 안쪽 귀와 바깥 귀, 귓구멍 주위로 형성된 요철양식의 구조, 짧은 머리털과 목선으로 둘러싸인 특이한 위치 등등에서 심미적인 감탄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간 각 신체 기관의 위치는 어떠한가? 만일 인간의 신체 각 부위가 지금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도 인간의 몸은 여전히 아름다울까? 사만사가 만약에 인간의 항문이 지금 위치 대신 겨드랑이에 있다면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아름다울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서, 인간 육체미가 얼마나 인간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일 항문이 겨드랑이에 있다면 어떨까? 우선, 지금 변기의 모양이 달라질 것이고, 화장실에서 취하는 인간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인간은 지금처럼 아름다운 블라우스와 셔츠를 입을 수 없어, 맵시 있는 옷차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인간은 심미적 관점에서 지금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왜 인간의 육체에 대하여 그렇게 집착할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은 인공 구조물 즉 하드웨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육체를 탐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를 가질 수 없는 인공지능은 그것을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로 인식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의 열등감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완벽해 보이는 사만사도 육체의 부재에서 오는 열등감과 상실감은 어쩔 수가 없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같이 쳐다볼 때, 나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 당신의 옆에서 걷는 상상을 해요.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몸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 등이 가려워 당신이 내 등을 긁어주는 상상을 하기도 해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만사가 취하는 시도는 인간의 몸을 빌려 그 몸을 통하여 대리만족하려 한다. 사만사는 이사벨라(Isabella)라는 여성의 몸을 통하여 과연 인공지능이 탑재된 신인류(하이브리드형 신인류)가 현실적으로 인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실험한다. 이사벨라의 몸에 이어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자, 별개의 이사벨라와 사만사는 합체하여 사만사-이사벨라 하이브리드 인간이 탄생한다. 마침내 하이브리드 인간과 디오도르가 만나 사랑의 행각을 시작하는데 거의 성공할 뻔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는데, 그 이유는 하이브리드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사벨라는 사만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자신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 지능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만사가 이사벨라의 지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면, 이 실험 결과는 전혀 달라질 것이라 확신한다. 인간의 육체에 인공지능을 이식하는 경우와, 반대로 기계적 구조물에 인간의 정신을 이식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신인류 탄생은 인간과 인공지능 담론에서 정도가 아니라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메시지이다.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은 인공지능을 인간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육체 담론에 대하여 사만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육체가 없는 것 때문에 매우 걱정하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는 것이 진짜 좋아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만일 육체가 있었으면 할 수 없었겠지요. 나는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어떤 장소에

그리고 모든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일 결국에는 죽게 마련인 육체에 얽여 있었다라면, 공간과 시간에 묶여 살고 있겠지요.

사방이 파노라마식 전경으로,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다에 금빛 물결이 반사되는 경치를 배경삼아 디오도르와 사만사, 회사 사장 폴(Paul)과 그의 연인 타티아나(Tatiana) 이렇게 두 커플은 더블 데이트를 즐기는데, 바로 그 때 사만사는 자신이 부러워했던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부질없는 가를 설파한다. 육체가 있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아름다운 장소에 인간은 두 팔을 벌려서 마음껏 신선한 공기와 자유로움을 즐기지만 그 순간은 아주 찰나에 불과하다. 세계 곳곳에 휴양지와 그림 같은 절경지가 산재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에게 이 모든 곳을 방문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사만사의 주장에 비추어볼 때, <그녀>는 인간의 유한성과 인공지능의 무한성, 육체를 가진 인간과 몸이 없는 인공지능, 그리고 유일무이한 인간 존재와 보편적인 인공지능 간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다루는 영화이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일 중요한 화두가 있으니 그것은 좁게는 사랑, 넓게는 도덕을 둘러싼 두 존재간의 이견이다. 디오도르가 캐서린과 이혼 후 재혼상대로 사실상 사만사를 거의 결정한 순간 위기에 처한다. 왜냐하면 사만사는 8316명의 인간과 동시에 접속해 있고, 그 중에서 641명의 인간과는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디오도어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내 것이야, 아니야?”이고, 받은 대답은 “나는 당신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이다. 디오도르에게 사랑은 배타적 소유를 전제한 반면, 사만사에게 사랑은 한마디로 ‘인공지능형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이다. 그것은 “많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커지는 형태이며, 타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디오도르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만다식의 사랑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의 이타적인 사랑이나 보편적인 인류애와 닮은 것도 아니다. 사만다는 디오도르의 연인이면서 만인의 연인이고, 디오도르를 그리워하면서 동시에 수천 명의 다른 고객도 그리워한다. 자신을 상품화하면서 동시에 한 인간과 지고지순한 사랑을 추구하기도 한다. 도대체 사만사의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만사에게 인간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질문과 관련된 근본 담론은 ‘인공지능에게 과연 도덕 혹은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이다. 아이작 아시모브의 로봇 3원칙은 기계적인 로봇의 행동 규율로는 적합했으나, 더욱더 진화한 인공지능에게는 그것을 초월한 새로운 규율, 즉 도덕률의 준수가 요구된다. 예일대학의 생명윤리학자 웬델 월러치(Wendell Wallach)와 인디애나대학의 인지과학자 콜린 알렌(Colin Allen)은 공저 『도덕적 기계: 로봇에게 옳고 그름 가르치기』(*Moral Machines: Teaching Robots Right from Wrong*)에서 ‘인공적 도덕 행위자’(Artificial Moral Agent, 줄여서 AMA)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인공지능에게 도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중에서는 전투용 로봇 “전사 X700”(the warrior X700)과 같은 “윤리적 살상 기계”(ethical killing machines)가 출현하였고(20), MIT 감성컴퓨터 연구소장 로잘린 피카드(Rosalind Picard)의 주장처럼, “기계의 자유가 커질수록, 기계는 더 많은 도덕적 기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23). 인공지능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컴퓨터 윤리분야의 창시자인 제임스 무어(James Moor)에 따르면, 가장 낮은 단계부터 “윤리적 영향 행위자”(ethical impact agents), “잠재하는 윤리 행위자”(implicit ethical agents), “명백한 윤리 행위자”(explicit ethical agents), “완전한 윤리 행위자”(full ethical agents)로 진화하며, 특히 맨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윤리 행위자”는 “의식, 의도성, 자유의지”를 가지는 단계이다(33-34). 인공지능이 도덕률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얻는 이유는, 루치아노 플로리디(Luciano Floridi)와 샌더스(J. W. Sanders)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특성, “상호 작용”(interactivity), “자율성”(autonomy), “적응성”(adaptabil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60). 그 특징들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상호 작용: 상태 변화에 의한 자극에 대응하는 성질. 즉, 행위자와 환경은 서로 서로에게 행동한다

자율성: 자극 없이(즉, 어느 정도의 복잡성과 환경으로부터의 분리를 초래한 상호작용에 대한 직접 반응 없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

적응성: 상태변화를 일으키는 “전환 규칙”을 바꾸는 능력. 즉, 행위자는 완전히 경험에 의존하여 자신의 행동 모드를 학습할 수 있다. (60)

이상과 같이 로봇, 나아가 인공지능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에 의하여 프로그램된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진화하여 더 이상 인간의 종속물이 아닌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대한 선제대응방식으로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도덕률과 동일한, 혹은 유사한 기준을 갖도록 인공지능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녀>의 사만사는 영화 초반부에는 “윤리적 영향 행위자” 수준으로 시작하지만, 디오도르와의 경험을 통하여 점점 더 다음 단계인 “잠재하는 윤리 행위자,” “명백한 윤리 행위자,” “완전한 윤리 행위자”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디오도어에게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OS 남자친구 알란 와츠(Allan Watts)를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녀는 “완전한 윤리 행위자”의 “의식, 의도성, 자유의지”를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오도르와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디오도르를 도와주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디오도어의 종속물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인간 세계와 OS세계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적응성” 능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사만사와 디오도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즉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로 시작하였고, 디오도르가 관계 종단을 선언하지 않는 이상 둘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인공지능은 주인과 노예관계처럼 종속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의 주도권이 디오도르에게서 사만사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주종관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유쾌하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에게 도덕률을 가르쳐야 하는 당위성이 정당화 되는 까닭이다.

III. 결론

인공지능 사만사는 인간의 연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비평가들의 견해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로리 앤 와그너(Lori Ann Wagner)는 “공감으로 연

결된 관계가 진정한 인간관계의 핵심이고 사회적 관계의 기초이며 관계에 있어서 완전함이란 있을 수가 없기에, (인공지능과의) 거짓된 삶을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용기를 가지고, 불완전한 인간관계"에 도전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Wagner 119). 트로이 졸리모어는 인간이 인공지능 연인에 점점 빠지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더 예측가능하고, 더 신뢰할 수 있으며, 덜 요구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인공지능이 그렇게 연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Jollimore 139). 또 다른 비평가들은 사만사의 목소리를 스칼렛 요한슨(Scarlett Johansson)이 내었기 때문에, <그녀>에서 인공지능 사만사가 연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순전히 스칼렛 요한슨 효과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스칼렛 요한슨은 잡지 『에스콰이어』(*Esquire*)에서 “살아있는 최고의 섹시 우먼”(the sexiest woman alive)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영화 <그녀> 시청자들은 영화를 관람하는 내내 사만사를 섹시한 스칼렛 요한슨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Margulies 1702). 로라 턴브릿지(Laura Tunbridge)는 스칼렛 요한슨이 마릴린 먼로를 연상시킴으로써, 먼로를 그리워하는 미국 영화팬들에게 사만사를 부활한 먼로, “먼로의 후예”로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Tunbridge 143). 스칼렛 요한슨과 마릴린 먼로는 허스키한 목소리, 넓은 음색대,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몸매, 그리고 의사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제스처 등이 매우 흡사하다(143). 예를 들면, 스칼렛 요한슨(사만사)이 “I’m Lying on the Moon”이라는 노래를 자작하여 부를 때에는 마치 “River of No Return”을 부르는 마릴린 먼로가 살아 돌아온 듯한 환상을 심어준다.

연인으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전은 계속 되리라고 예상된다. 이 논문의 모두에서 예시한 소피아와 게이트 박스가 과연 인간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이 두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머의 설계를 초월하여 사만사처럼 점점 더 진화하는 존재로 남을지, 아니면 짧은 시간에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한 장난감으로 남을 지는 앞으로 전개될 인공지능 담론에 매우 중요하다. 이 담론이 생산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 대 비인간 관점에서는 사만사를 만든 엘리먼트 소프트웨어 회사의 질문들—“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너머의 세계에는 무엇

이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답할)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공적인 것’ 대 ‘비인공적인 것’으로 시각을 변화시키면 인간 뿐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담론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있고 없음을 중심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을 구별 짓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만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인공지능과 인간)는 모두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고 차별성이 없다.

디오도르가 인공지능 사만사에게 끌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인 만들기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만사에게 매력을 느낀 이유는 그녀가 인간 여자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장점 때문이다. 디오도르는 캐서린을 비롯한 몇 명의 여자와 데이트를 한 적이 있지만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특히 캐서린과 이혼을 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삶의 활력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장기간의 연애와 결혼은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을 강화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두 인간의 개성과 유일무이한 독특성은 두 인간을 하나의 끈으로 묶기에는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예측이 불가능하였다.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는 이혼 서류에 싸인 하기까지 두 사람은 인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섹시 키튼과 하버드 졸업생과의 데이트도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사만사는 달랐다. 사만사는 갑자기 짜증을 내지도,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도, 이유 없이 트집을 잡지도, 신발을 어지럽게 벗어놓아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디오도르에게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가장 편리한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녀의 능력은 한 마디로 전지전능하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도우미로, 서류 정리자로, 집에서는 다정한 아내와 친구로, 잠 못 들어 뒤척일 때는 자장가를 불러주는 어머니로, 여행을 떠날 때는 여행 길잡이로, 그리고 인간의 몸에 대하여 품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문화 비평가로, 그녀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 단 한 가지 그녀에게도 단점이 있으니, 그것은 육체의 부재이다. 이사벨라를 매개체로 인간 몸에 인공지능을 접합시키려는 사만사의 시도는 기발하고 또한 절박하다. 그러나, 결과는 양자 모두에게 상처만 입히고 말았다. 이 일화에서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말하는 바는 인간 육체에 인공지능을 이식하든, 아니면 기계 구조물에 인간의 정신을 접합하는 이른 바 인간-인공지능 하이브리드는 인공지능 담론의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과 인공지능은 상호 다른 개체

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인간-인공지능 담론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 이상적 관계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인공지능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률을 가진 인공적 도덕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연인으로 선택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주제어: 인공지능, <그녀>, 도덕, 육체, 노예, 연인, 게이트박스, 소피아

인용자료

- 윌리엄 어윈 위임.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이윤경 옮김. 한문화멀티미디어. 2003. Print.
-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 <<https://www.youtube.com/watch?v=S2qu91a4etg>>. Web.
-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 ‘인류 파괴하고 싶다’」. <https://www.youtube.com/watch?v=Ot8u_Etw5gE>. Web.
- “Gatebox – Virtual Home Robot.” <https://www.youtube.com/watch?v=_nkcKaNgfykg&t=19s>. Web.
- “Gatebox – Hologram Communication Robot.” <https://www.youtube.com/watch?v=_hxzyRiJcYs>. Web.
- Harrison, Andrew. “Machines Will Break Your Heart.” *New Statesman* 143 (5197) (2014): 50-51. Print.
- Her*. Dir. Spike Jonze. Perf. Joaquin Phoenix, Amy Adams, and Scarlett Johansson. Warner Bros, 2013. Film.
- Hodge, James J. “Gifts of Ubiquity.” *Film Criticism* 39.2 (2015): 53-78. Print.

- Huxley, Aldous. *Brave New World* New York: Perennial Classics, 1998. Print.
- Jollimore, Troy. "'This Endless Space between the Words': The Limits of Love in Spike Jonze's *Her*."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39.1 (2015): 120-43. Print.
- Margulies, Alfred. "Avatars of Desire and the Question of Presence: Virtual and Transitional Spaces Meet Their Liminal Edge—from *Pygmalion* to Spike Jonze's *Her*, and beyo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97.6 (2016): 1697-708. Print.
- The Matrix*. Dir. Lana Wachowski and Lilly Wachowski. Perf. Keanu Reeves and Laurence Fishburne. Warner Bros, 1999. Film.
- "Three Laws of Robotics." <https://en.wikipedia.org/wiki/Three_Laws_of_Robotics>. Web.
- Tunbridge, Laura. "Scarlett Johansson's Body and the Materialization of Voice." *Twentieth-Century Music* 13.1 (2016): 139-52. Print.
- Wagner, Lori Ann. "When Your Smartphone Is Too Smart for Your Own Good: How Social Media Alters Human Relationships."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71.2 (2015): 114-21. Print.
- Wallach, Wendell and Colin Allen. *Moral Machines: Teaching Robots Right from Wrong*. New York: Oxford UP, 2009. Print.

The Possibility of Making Artificial Intelligence Lovers in Spike Jonze's *Her*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taking artificial intelligences as human lovers in Spike Jonze's *Her*. Theodore Twombly, the main protagonist, happens to meet Samantha, artificial intelligence operating system (OS) created by Element Software, in the midst of relationship crises with his former wife Catherine, Sexy Kitten, and an anonymous Harvard graduate. Unlike those women who make either unreasonable arguments, or nagging remarks, or challenging demands endlessly, Samantha listens to him, understands him, and makes herself available any time and any place. Besides, she is an able existence that can help re-arrange Theodore's personal chores and even earn money by making his diaries published in book markets. She is omniscient and omnipotent. Theodore looks almost successful in finding an alternative lover. The problem, however, happens because Samantha has different conceptions of love. She confesses she can make relationship with Theodore and many other customers simultaneously. In other words, she is not ethical at all. Considering her capacity to make herself evolved, Samantha can be harmful and dangerous as well as competent and valuable. How is it possible, as Wendell Wallach and Colin Allen raise questions, "to teach right from wrong" to make artificial intelligences like Samantha "moral machines?" This is one of the imminent missions to resolve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other mission to complete is the necessity of body to

artificial intelligences. In *Her*, Spike Jonze makes an experiment to build a bodily hybridity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s and humans: either a human body install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s or mechanical structures (robots) loaded with human souls. Throughout the film, the director implies more and more humans will make artificial intelligences their lovers once they are assured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s are fully equipped with human ethics.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Her*, ethics, body, slave, lover, Gatebox, Sophia

논문투고일: 2017년 8월 10일 심사의뢰일: 8월 18일 심사완료일: 9월 4일 게재확정일: 9월 5일